

각인전쟁에서 승리하라

잠언 22:6

최정웅 목사님

무엇이 각인되었느냐에 따라서 다 나온다. 태영아, 유치부 때 다 결정된다. 천주교에서 수녀들이 말했다고 한다. 7세까지 아이들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면, 우리는 온 세계를 천주교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 시기가 중요하다.

(1) 세상은 열두 가지 문제에 빠져 있다.

- ① 창3장, 6장, 11장이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문제다.
- ② 행13장, 16장, 19장의 문제에 빠져 있다. 무속, 점술, 우상이다.
- ③ 개인이 빠져 있는 여섯 가지 문제다.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다. 이제는 아셔야 한다. 근본문제, 영적문제,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다. 이게 계속 내려간다. 이것은 이 세상에 답이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다. 최근에 서울시장이 미국에 가서, 미국 말고 세계 최초로 동성애를 허용하는 도시가 되게 하겠다고 했다. 예수 믿어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300만 원 벌금을 물리겠다고도 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도 나올 모양인데, 그래서 안 된다. 최근 어떤 큰 교단에서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기독교와 같다고 말한다.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의 실상, 우리의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반드시 답이 있지 않나? 그런데 출제자들이 문제도 아닌 것을 내서 답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문제가 틀린 것이다. 언젠가 목사고서 위원으로 나갔는데, 교회사 제출위원이 답 없는 것을 문제로 냈다. 그래 놓고는 미안하다 하면 될 텐데, 답을 안 쓰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웃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2) 문제를 알게 되면 반드시 답이 있다. 열두 가지 문제에 인간이 다 빠져 있는데, 우리가 답을 알게 되었지 않나? 여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것을 아셔야 한다. 행4:12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계복음화신문에, 유대교회 이슬람교가 어떻게 묶여 있는지, 천주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글이 나왔다.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 이것을 엄마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근원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제시한 답이다. 여자의 후손(창3:15), 임마누엘(사7:14). 그 분이 정말로 오셨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똑같은 이야기를 아이가 어떻게 싫증나지 않게 들을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게 기술이다. 어떻게 하면 되나? 아이에게 약을 먹이려고 해 보자. 쓴 것을 절대 안 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설탕도 타고 꿀도 타서 먹이지 않나?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예화도 알아야 하고, 문화도 알아야 한다. 거기에 써서 입을 벌려서 넣어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각인전쟁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부터 알아야 한다.

1. 잘못된 것으로 다 각인되어 있다.

그게 언제 때문인가 하면, 주로 유치원 때까지다. 이 시기에 각인된 것은 안 빠져나온다. 그게 문제인 것이다.

(1) 뭐가 잘못 각인되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습관이 계속 각인된다.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이런 것은 다 어릴 때 각인된 것들이다. 식습관도 그렇다. 어릴 때 각인된 입맛이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인은 시어머니에게 잘 물어보는 법이다. 그런데 절대 안 물어본다. (웃음) 그러니까 평생 입맛을 못 맞추는 것이다. 습관이 어릴 때 들어버리는데,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다. 이것이 평생 간다. 정리하는 습관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습관이 심어지면 그

대로 가는데, 여지없이 부모를 닮는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야 한다.

(2) 그 정도가 아니다. 여기에 다 나왔다. 잘못된 문화가 각인되어 버린다.

① 우리나라에는 우상 문화가 각인되어 있다. 이상한 습관이 문화로 온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우리는 유교, 불교문화를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보면 딱 불교식, 유교식이 나온다. 그런 문화가 있다.

② 퇴폐문화 같은 것도 있다. 맹모삼천지교라고 하지 않나? 회한하게도, 아이들은 나가면 아름다운 이야기를 배워 오지 않는다. 욕하는 것부터 배워 온다.

③ 생활습관도 딱 닮는다. 아이들을 따로 재우는 것도 그래서 잘 배워야 한다. 지금이야 온돌에서 침대 문화로 넘어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기러기엄마, 기러기아빠는 반대하는 사람이다. 아이가 1% 속에 있으면 그래도 된다. 나를 희생하고 기문, 민족을 위해서 아이를 키워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반대다. 삶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내 삶 전체를 포기하면서까지 아이에게 쏟아버우면 안 된다. 이렇게 잘못된 것들만 각인되고 있지 않나. 잘못된 것들이 이미 각인되어서,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야 한다.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인데,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하는 것이 ‘who am I’ 다. 그러면 당장 나오는 말이, 성이 뭐고 이름이 뭐고 교향이 뭐고 학교를 어디 나왔고 하는 식으로 표현한다. 나는 정말 누구인지, 어떤 나쁜 습관이 잠재되어 있는지, 그것이 흘러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대단히 잘 하는 것이다. 예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대로 알아야 복음이 들어간다. 그래야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 마귀 귀신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 부분을 해결해야 복음 아닌가? 그런데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니까 해결이 계속 안 되는 것이다. 자, 잘못된 것이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가져야 하고, 아이를 낳을 때는 유아교육에 대해서 부모가 같이 공부를 해야 한다. 가정생활, 육아, 다 공부를 해 두어야 한다. 만남은 단 순히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니다. 두 가정, 두 가문, 두 문화, 두 환경의 만남이다.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잘못된 각인이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습관 중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TV다. 문명의 이기를 버리라는 말은 아니지만, 아이가 거기에 심취하기 시작하면 누워서도 보고 숨어서도 보게 된다.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점점 이게 발전하는데, 아이를 다 버리게 된다. 요즘 보면 아이들이 안경 안 쓴 아이가 없을 정도 아닌가. 그래서 요즘은 젊은 친구들 중에서 아예 TV를 없애는 집도 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휴대폰이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살고 있다. 여기에 중독된 아이들이 너무 많다. 아예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우리가 잘못된 생활습관, 식습관, 무엇이 잘못 각인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아는 게 중요하다.

2. 성경은 복음(언약)으로 각인시키라고 말씀한다.

그래야 빠져나온다는 것이다. 고후5:17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한다. 내가 복음운동을 접하게 된 이유도 이것이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예를 써도 교우들은 변하지 않았다. 오후기 같았다. 건드려 놓으면 놓는 것 같다가 또 제자리로 간다. 그래서 옛날에는 봄 부흥회, 가을 부흥회를 계속 했다. 부흥회를 하고 나면 좀 은혜를 받고 변하는 것 같다가, 3개월 만에 제자리로 그대로 돌아갔다. 그러나 정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운동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다. 변화가 될 때까지 복음을 들어야 한다. 복음이 각인되어야 한다. 다른 것으로는 변화가 되지 않는다.

(1) 예를 들어 요셉은 복음이 어릴 때 각인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어떤 악한 습관이 와도 상관없이 없었다. 왕궁의 문화와 밖의 문화가 완전히 다르다. 감옥 문화, 노예 문화가 완전히 다르다. 원래 요셉은 부잣집 막둥이였다. 그런데도 가서 적응하고, 휘말리지 않았다.

(2) 다윗도 마찬가지였다. 언약과 복음이 확실해지니까 어떤 경우에도 휘말

리지 않았다.

(3)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다. 단1:8에 이렇게 말했다. “뜻을 정했다.” 포로로 끌려가서 뜻을 딱 정한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임금이다. 128도의 수제를 다 모았는데,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 중에서까지 뽑았다.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다. 쉽게 말해 집현전 같은 곳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국립 영재학교였던 셈이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서 뜻을 정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기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지금 본당에서 돌아다니고 강대상에 올라오고 해도 괜찮다. 다 듣고 있다. 교회 안에서 자라기만 해도 성공한다. 교회에서 놀아야 한다. 유승범, 유승환 집사가 오늘 뭐가 보고를 했는데, 어릴 때 강대상에 기어올라오던 아이들이었다. 복음 안에서 자라도록 해 주어야 한다. 아버지 야곱, 이새가 자녀에게 제대로 전달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으로 제대로 무장하고,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우리 할머니가 글자를 모르는 분이었지만, 예의를 얼마나 철저히 가르쳐주셨는지 모른다. 나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을 떠났지만, 예의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지금도 숙부님을 만나면 큰절을 한다. 이것은 나에게 각인된 것이다. 나는 함부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앉을 자리만 잘 찾아도 괜찮은 사람이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나? 밥상에 앉아도 자기 멋대로 먹는 게 아니다. 이런 습관들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배운 것이다. 제대로 된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제대로 배운 것이다. 자, 복음으로 각인시키시기 바란다. 아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각인시켜라. 두 가지만 보면 된다. 어머니이든지 아버지든지, “엄마는 맨날 교회 가는데 걱정만 한다.” 이래 가지고는 절대 좋은 습관이 안 생긴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그것을 아이들이 몇 번 만 보면 각인된다. 자기에게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엄마, 아빠가 응답을 받는구나.’ 그렇게 보여주어야지, 안 되는 것만 보면 자라서 복음과는 멀어지게 된다. “엄마, 아빠를 보니까 말씀은 정말 성취되는구나.” 한 번 만 보면 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언약 전달을 할 때, 글이 없으니까 구전으로 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되었던지, 그 구전을 기록했는데 성경이 되었다. 우리 메시지는 다르다. 부흥회를 가면 허풍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침소봉대해서 거짓 말을 계속 한다. 그런데 우리는 메시지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말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말이다.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복음적인 각인이 되게 하라. 그러면 아이가 산다. 찬송을 들으면서 잠들고, 찬송을 들으면서 잠을 깨는 집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엄마의 기도소리를 들으면서 잠들고, 엄마의 기도를 받고 학교를 가는 아이는 행복할 것이다. 내가 어떤 서양 영화를 봤는데, 엄마가 잠든 아이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아이가 잠들면 불을 끄고 살며시 문을 닫고 나온다. 저런 교육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복음으로 각인시키도록, 제대로 된 언약과 습관을 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락 시간이 지나면 같이 방을 정리하도록 습관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일본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못 따라간다. 하찮은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다다. 요셉을 총무로 세웠더니 그 집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았다. 왕이 봤더니 감동을 받고 총리로 세웠는데, 청년 요셉을 왕이 아버지라 생각할 정도였다. 언약과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3. 좋은 습관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학자의 집안에서는 학자가 나온다.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늘 책을 들고 있지 않나. 의사의 집에서는 의사가 나오기 쉽다.

(1) 성경 읽는 습관, 독서습관이 중요하다. 찬송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들던 말’ 해 놓고 한 번도 안 하지 않나? (웃음) 우리 태영아부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 모세요경을 다 암송하게 한다. 지금도 북한에는 마태복음 집사, 로마서 집사가 있다. 책을 가질 수 없으니까, 예배시간에 어느 성경을 읽자 하면 담당 집사가 나와서 그 부분을 암송할 정도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한다. 습관이다. 아이들은 보게 되어 있다.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아이에게 박힌다. ‘아, 엄마는 저 시간에 기도하는구나.’ 몇 번 만 보게 되면 아이에게 박힌다. 나는 지금도 어머니가 어려울 때 흥얼거리던 가락이 생각한다.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독서 습관은 정말 훌륭한 습관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 읽는 것이다. 성경을 즐겁게 읽으라. 계1:3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나는 복음소식을 암송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싶다. 그때까지만 살고 싶다. (웃음) 나도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웃음) 엄마들이 지금 잘 하고 있다. 읽는 정도가 아니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것을 했지 않나? 시5:3에, 아침에 했다. 시17:3에는 밤에 있다. 시23:1에는 주야로 했다. 이것을 늘 보고 듣고 자랐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훌륭한 신앙인이 나온 것이다.

(2) 두 번째 습관은 운동 습관이다.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절대 안 한다. (웃음)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나는 예전에 시골에 살 때는, 시간만 있으면 아이들과 손을 잡고 동산에 가고 그랬었다. 도시 아이들은 그것을 모른다. 아스팔트가 고향이니까 추억이 없다. 나는 눈만 감으면 5km 들만에 가득하게 황금물결이 일렁이는 것이 떠오른다. 그 거센 바닷바람과 풍랑에도 독수리 한 마리가 끄덕도 하지 않고 미동없이 하늘을 나는 것을 그때 보았다. 거기에서 기상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넓은 세상을 배웠다. 그런 것을 배워야 한다. 운동 습관도 그럴 때 배웠다. 산책도 하고, 호흡도 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보게 해야 한다. 나는 지금 여기서도 물구나무를 설 수 있다. 청년 때 요가를 좀 배웠는데 지금도 할 수 있다. 운동 습관은 평생에 도움이 된다.

(3)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못 해 본 것이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을 아이들이 보도록 해야 한다. 묵상하는 습관이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다. 이런 사람들은 정시기도를 어릴 때 배운 것이다. 그러니까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실행할 수 있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곳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킬 것인가 하는 전쟁터다. 미국 아이들을 보면, 절대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고 텅굴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했더니, 주일날 옷을 다 연미복을 입히고 나비넥타이를 매고 오게 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특별한 날이라는 것이 각인되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내가 미국 대형교회 12곳을 순회해 보았는데, 아이를 그렇게 가르친다. 떠들 것 같으니까 말도 하지 않고 입술에 손을 갖다대고 또 강대상과 주변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는 경건의 모습이 대단했다. 그런 것은 훈련이다. 오랫동안 훈련을 했으니, 예배당에서는 그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아는 것이다. 대신, 놀이터에 가면 무조건 어린이 중심이다. 목상이 너무 중요한데, 나만의 기도시간이 있어야 한다.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아이에게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정시기도, 무시기도, 권세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보면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태중에서도 메시지를 듣고 그러니까, 내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다. 놀라운 것이, 요즘 유아세례를 할 때 보면 우는 아이가 없다. 나는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이다. 전에는 유아세례 때는 난리였다. 복음운동 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부모들이 설교를 제대로 듣고, 자녀와 함께 듣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 와도 앉아만 있고 안 들으면 그게 안 된다. 은혜를 절대 못 받고 각인이 안 된다.

결론이다. 7세 이전까지는 전부 각인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정말 복음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고민만 해도 된다.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지 않나. 복음 가진 엄마들은 교회 옆으로 이사 와라. 비전스쿨은 열 명만 있어도 할 것이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돈 많이 벌어서 뭘 하려는 게 아니다. 한 아이에게라도 복음을 제대로 심어야지. 그 중에서 다윗 같은, 링컨 같은 인물이 나올지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미래가 있다. 태영아부 있는 단체는 우리 단체 외에는 없다. 그런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어릴 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는데, 태영아부, 비전스쿨이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요즘은 교회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매물로 나오는 것을 사면 된다는 것이다. 사랑교회에 갔더니 건축 대신 그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한국교회가 큰일이 났다.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 지역 문화를 바꾸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자녀들이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몫을 하면 된다. 각인전쟁을 제대로 하자.